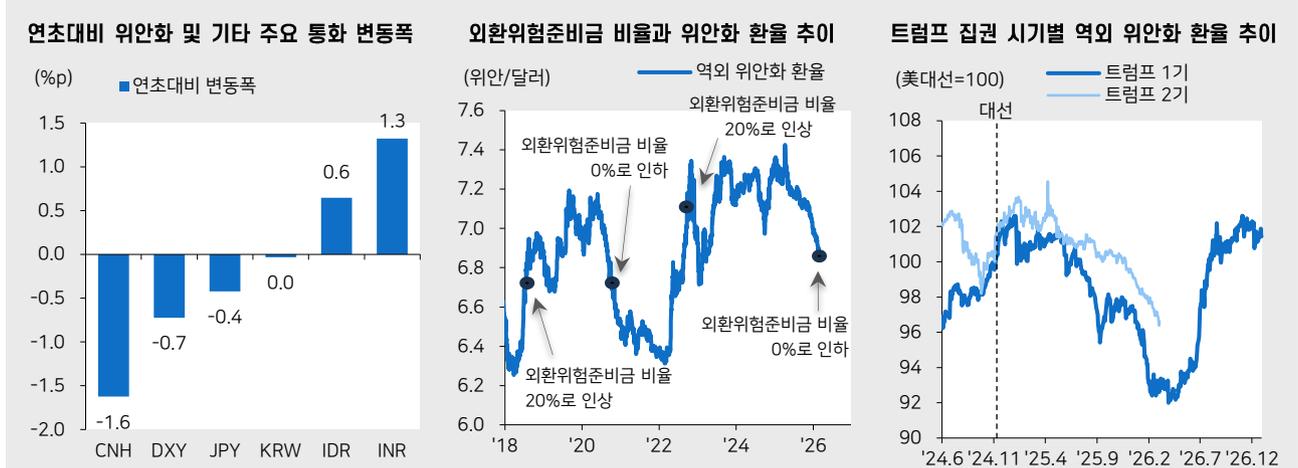


오늘의 차트 최선휘 연구위원

위안화 강세, 어디까지 절상될까?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최근 위안화가 뚜렷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변동폭이다. 연초대비 2월 말 달러 인덱스가 0.7% 하락하며 완만한 약세에 그친 반면, 역외 위안화 환율은 1.6%나 하락하며 가파른 절상세를 보였다. 이는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와 더불어, 춘절 연휴 전후의 수출 확대에 따른 대규모 결제 대금 유입이 위안화 수요를 강력하게 견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3월 2일부터 외환위험준비금 비율을 기존 20%에서 0%로 전격 인하했다. 정부는 과거 총 5차례에 걸쳐 이 비율을 조정하며 시장에 개입해 왔으나, 환율 변동의 속도를 조절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 효과에 그쳤을 뿐 환율의 근본적인 방향을 전환하지는 못했다. 이번 인하 역시 위안화 절상 기조를 추세적으로 반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이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홍콩 SCMP는 중국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 가능한 ‘양보안(concessions)’ 마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농산물 및 에너지(천연가스, 석유) 구매 확대를 카드로 내세워, 대만 문제나 기술 제재 등 핵심 안보 이슈에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위안화의 추가 절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 위안화는 과거 트럼프 1기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정상회담 기대감까지 고려하면 추가 5% 전후의 절상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위안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3~4월 중 전개될 미·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추천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